

2020 제1차 정기이사회

회 의 록

「충남연구원 2020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① 회 의 개 요

1. 일 시 : 2020. 3. 26(목), 11:00~12:30
2.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3. 참 석 : 총 11명(이사 10, 감사 1)
 - 불 참(8명) : 이사장, 구만섭 이사, 김영만 이사, 송준호 이사, 이수훈 이사
이정문 이사, 홍성주 이사, 김하균 감사

4. 부의안건

□ 보고안건,

- 제1항 2019년도 사업실적
- 제2항 2019년도 감사결과

□ 심의의결안건,

- 제3항 2019년도 결산(안)
-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제5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 제6항 실적평가규정 개정(안)
- 제7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안)

5. 진행흐름



② 회의 결과

□ 간사 안내

- 오늘 이사회는 이사장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연구원 정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께서 “김수민” 이사님을 회의주재 이사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김수민 이사님께서 이사장을 대신해서 이사회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 “김수민” 이사님께서서는 이사장 좌석에 앉으시어 이사회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이사 이사장 석으로 이동]

□ 개 회(간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 개회선언(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인사

- 아시다시피, 오늘 양승조 지사님이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바이러스 비상사태를 비롯한 여러 도정일로 바쁘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비상시국이 끝나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 부의안건 심의의결

<의 장>

-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본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의록 기명 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실 이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이사>

- 정세은 이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정세은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박정배 이사>

- 박종찬 이사님을 추천합니다.

<의 장>

- 정세은 이사님과 박종찬 이사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이사님 모두가 동의해 주셨으므로, 박종찬 이사님과 정세은 이사님을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기명이사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두 분 이사님께서서는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종찬 이사, 정세은 이사〉

- 알겠습니다.

〈의 장〉

- 다음은, 간사께서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오늘 심의의결 하실 안건은
 - 먼저, 보고안건으로
 - 제1항 2019년도 사업실적
 - 제2항 2019년도 감사결과 등 2건과

□ 의결안건으로

- 제3항 2019년도 결산(안)
-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제5항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 제6항 실적평가규정 개정(안)
- 제7항 연구업무수행규정 개정(안) 등 5건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의 장〉

-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부의된 안건을 의사안건별로 묶어서
일괄 상정한 후에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의된 안건 중 유사안건별로 묶어서 일괄상정
해서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보고안건으로
 - 제1항 제2019년도 사업실절 보고와
 - 제2항 제2019년도 감사결과 보고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가 2건의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말씀 바랍니다.

<정세은 이사>

- 15개 시군맞춤정형 정책연구를 했던 것이 반응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군맞춤형 연구를 했을 때 통계 자료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 저 같은 경우도 대덕구에서 연구 요청이 왔을 때 통계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방통계자료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 사>

- 그에 따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통계 처리가 어려운 시·군도 있고, 그동안 축적했던 꽤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된 시·군들도 있습니다.
- 올해 연구원이 25주년 되어, 그 동안 연구 자료를 교부해 오면서 축적했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우리연구원이 향후에 데이터센터를 개설해서 정리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 그것을 통해서 함께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 장〉

-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시·군 통계를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 지역 현장의 설문조사, 전화조사, 서면조사를 통해서 현장통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 물론 종합통계청 자료도 참조하지만, 시군의 통계를 획득해서 우리연구원이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이것을 기준으로 기획경영실장이 보고 했다시피 우리연구원이 현재 자체적으로 충남도와 협의하여 데이터 베이스정보통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센터 급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4년, 5년 후 부터는 모두 공유 할 수 있는 뼈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배 이사〉

- 일단은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 성과라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연구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성과를 내어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비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충남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성과를 냈고, 이런 일을 진행했다.” 라는 것만 보여 지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서”, “우리랑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시 됐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은 사회통합, 경제산업, 지역도시문화, 공간환경이 있습니다, 제 전공이 문화 쪽이어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 문화관광 체육관련 해서 정부에서는 “국제관광 도시라든지”,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충남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 같습니다.
- 도지사님께서 문화부지사라는 제도까지 두어서 했는데, 충남연구원이 그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 해주셔서, 경쟁력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것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도지사님이 충남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원이 충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 사〉

-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차후에 준비할 때는 타 연구원과 비교해서 우리연구원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체육부분은 연구원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연구원이 체육정책 박사를 1명 충원했습니다.
- 현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계획, 문화도시지정관련 기본계획, 2030문화체육 정책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박쟁배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문화예술 분야로 연구하는 박사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 신규로 들어오신 체육정책 박사님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매진 하겠습니다.

〈원 장〉

- 관련해서, 추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연구원은 다른 광역시·도 연구원 국책 원구원 모든 연구기관 조직과 관련해서 인경경영센터를 최초로 만들어, 작년에 인권경영센터를 작동시켜 연구원의 인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조직적 차원에서 다른 연구원과 별도로 차별화 되는 것이 작년부터 우리연구원이 대실제로 개편할 때 정책지원사업단을 두어서 센터들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 과제상 추진하는 연구가 “충남연구원 연구자들의 책상 위의 연구가 아니라”, “현장 회복 정책모델로서 현장 속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다.”는

취지에서 현장속의 도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시스템을 작동 시켜서 현장에 대한 과제평가, 기획, 연구보고서를 내려고 합니다.

- 정책과제 추진시스템이 그런 과정 속에서 NGO 단체, 전문가,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해서든 반영되어 다른 연구원과 차별되어 있습니다.
-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외MOU, 국내 MOU를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 우리연구원은 독특하게 MOU 구성 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공동적인 정책적과제를 함께하거나 공동 행사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지 MOU를 체결합니다.
- 특히 차별화 되는 것은 외국의 기관인 중국의 후베이성, 요녕성 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및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른 연구원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연구원이 이런 측면에서 많은 업무 추진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이사님이 지적하신 다른 연구 기관과의 비교요청 관련해서 이런 측면을 반영하여 다음 이사회 때 보고 하겠습니다.
- 현재 정원이 47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 체육관련 분야 외에도 인권, 남북지역 교류협력의 연구인원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체육 분야를 비정규직의 계약제로 초빙했습니다.
- 산하기관들 중 문화예술 정책관련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 "다른 산하기관과 업무상 중첩이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전공자들을 채용하면서, 다른 산하 기관과 차별되는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 이사님들이 보는 문화관광 체육뿐만 아니라, 사각 지대에 있는 철학 사상, 남북지역교류, 동남아교류, 아시아지역교류, 교육학 분야, 전통 정책 분야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이사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시오!

〈의 장〉

- 일취월장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황배 이사〉

- 2019년 자료에 의하면 744건의 놀라운 성과 및 실적을 내어, 감사 말씀 올립니다.
- 이와 관련해 744건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정책과제, 수탁과제, 다양한 전략과제가 있습니다.
- 건수가 많다보니, 과제에 대한 적절한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은 2020년도 과제와 예산이 나왔는데, 주로 큰 방향이 미래정책, 실수요 운영방향, 융복합연구, 현장 중심에 대한 연구 예산안이 212억 정도 됩니다.
- 분야별로 비중이 안 나와서,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간 사〉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제연구 형태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략연구, 현안과제연구, 시군협력연구 수탁연구가 있습니다.
- 수탁연구는 의뢰하는 기관에서 돈을 부여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연구원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현안과제는 저희 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우리연구원이 무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과제들은 전략과제와 시·군 협력과제가 배분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보조 사업 및 기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보시면 일반회계가 128억 특별회계 85억입니다.
- 정책사업 위주들은 85억에 포함 됩니다. 과제는 128에 포함됩니다.
- 그 중에 일부 목적성의 수탁과제인 시·군협력 과제는 출연금 형태로 들어옵니다.
- 우리연구원 자체로 추진하는 것은 전략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진호 이사〉

- 충남연구원이 연구 과제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 정책에 대한 결과물을 한부 정도씩 배분해주시면, 그것을 보고 회의 때 제안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간 사〉

- 지금 말씀하신 도정 핵심과제 11건인 그 부분이 작년에 출발해서 현재 이월 되어서 하는 연구사업도 있고, 종료된 연구사업도 있습니다.
- 종료된 연구 사업은 이사님들께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구하

는 것도 향후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 다만, 이제 도와 함께 사전에 기획해서 만드는 과제임을 감안해주시고 더 기획할 수 있는 과제들의 주제들을 충언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정일 이사〉

- 현장 중심의 연구 진행이 확장되고 있는데, 시·군 과제 그것과 연동되어서 중간에 센터 역할이 확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시·군 과제를 주로 할 텐데, 대부분 융복합 과제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존 도 중심의 전략과제들이 축소되고 시군과제들로 확장되면서, 시·군에서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융복합 과제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확대되는데, 질적으로 잘 정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융복합 과제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간 사〉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시·군의 미래들을 먼저 내딛어 보는 그런 융복합 연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엽적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솔루션을 찾아 내는 연구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융복합 연구 같은 경우는 시군의 전담연구원이 있습니다.
- 전담연구원이 전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우리연구원이 연구실로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대실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예로 들자면, 공간환경연구실이 있으면 기존에 도시계획하시던 지역도시연구원과 환경 생태계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 한실에 담기면서 도시 환경을 연동해서 풀어가는 모델들을 발굴하는 식으로 융복합 대응 체제로 개편 되었습니다.

〈이정일 이사〉

- 실질적으로 가능한 성과들이 있습니까?
-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 일 텐데, 현재의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간 사〉

- 우리연구원 작년에 미래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우리연구원이 성과발표 대회를 개최해서 같이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 그것은 코로나사태로 무기한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
-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판단 할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융복합연구 중심의 결과물을 이사님들께 책으로 다 드리면 양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아,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 장>

-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장의 시군 협력과제, 현장체험 정책이 작동 될 때 이사님들께서도 참여 하여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연구원은 과제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은 주로 센터들이 합니다. 마을만들기, 6차산업센터, 재난안전센터, 경제교육센터, 물환경센터 등이 있습니다.
- 이 센터들이 과제도 하지만 동시에 각 시·군과 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각 시군에 3명 ~ 5명 정도가 시군 협력팀으로 연구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는 어느 한 부서가 전공이 제한된 분들이 참여 했습니다.
- 현재 우리연구원의 다양한 전공자 뿐만아니라, 해당지역 전문가 및 담당 관들이 시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7명 내외정도로 해서 과제들을 발굴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수행 중에 협력과제가 수탁으로 들어오면, 우리연구원은 그 과제에 대해서 심화시켜 현안과제로 채택하고, 발전되면 나중에 전략과제로도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맞는 사업과 관련되어, 보령머드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투입되어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좋 겠다.”라고 요구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 연계해서 시·군 담당자를 연구원으로 초청해서 시·군별 맞춤형으로 정책 제안을 같이 했습니다.
- 함께 연구원에서 하루 종일 의논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서로 내고, 사업 방향성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 전에는 없던 일이라 호응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 이런 결과물 들이 과제 할 상황으로 되면 우리 이사님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정책적인 협업이 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문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 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9년도 사업실질 보고와 제2항 제2019년도 감사결과 보고등 2건을 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3항 제2019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정세은 이사>

-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정도 되죠 기관마다 유동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 사>

-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안을 세울 때 우리연구원 추천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 그 예산이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은 금액이 변동적입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김정희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입니다.

〈김정희 과장〉

- 결산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반회계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 특별회계에서도 10억 정도 남아서, 상당히 많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 잉여금액은 이익과 자본으로 나뉘는데, 이익잉여금은 일반 기업에서는 기업 사내 자본 적립잉여금으로 남습니다.
- 우리연구원은 사내적립잉여금은 없습니다.
- 다음 년도 예산액에서 그 만큼 편성합니다.
- 순세계 잉여금이 다음 이월사업비, 인건비, 연구사업비에 포함되므로 예산에 포함된 것이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매년 많은 잉여금액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자체영업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재무표제표상에서의 단기순익은 합쳐서 4억8백정도 나왔습니다.

〈원 장〉

- 그와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연구원에서의 수탁과제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월 되는 사업들이 연계되고 이자보존 또한 포함합니다.
- 다른 공공기관처럼 다 쓰고 제로상태에서 시작하면 좋을 텐데, 다른 공공기관들과는 다르게 우리연구원은 사업과 과제가 연계되어서 제로상태에서 시작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정세은 이사>

- 지출결산에서 집행비율이 낮습니다. 84프로, 87프로인데 어떻게 봐야합니까?

<김정희 과장>

- 연구 사업비가 특별회계 79.3프로와 일반회계 89.3프로입니다. 특별회계의 대부분 잉여금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나옵니다.
- 8억정도 됩니다.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조례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연구원에서 별도로 분리 독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독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수탁용역사업을 많이 합니다.
- 향후 재단 법인으로 독립할 때 유효 적립금을 만들기 위해 아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연구 사업비를 안 쓰면 실질적으로 연구를 안 한 것으로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윤을 많이 남기는 형태입니다.
- 일반회계는 예년보다 연구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 시군 과제인 수탁용역을 통해서 시군출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연구원은 용역거래공정법위반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을 통해 용역을 받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입찰을 하게 되면 연구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격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 도와 시군에서 출연금은 확장성을 갖고 줄 테니 그에 해당하는 수탁용역을 해달라고 합니다.
- 수탁용역은 연구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있어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 출연금은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있어서 형식적인 비용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 비교해서 별도의 수탁용역 1억을 한 것과 출연금 1억을 한 것을 비교하면 출연금 사업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과 연결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원 장〉

- 관련해서 그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서해안 기후환경 센터가 두 개가 안에 있습니다.
- 2022년 독립해야 하는데 센터가 자꾸 늘어 납니다.
- 올해도 늘어나는데 쓸 비용을 안 쓰는 것입니다. 확인 해보니 독립할 때 전략적으로 자금화 시키기 위해서 세이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연구원에서 제한이나 제재를 해서 사업비를 쓰도록 제하려 해도 관련 담당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자체적으로 수탁을 하여, 별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연구원은 제3의 기관이라 개입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율적으로 맞춰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문제 인식은 있지만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박종찬 이사〉

-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 도의 연구원들은 어떤 연금제도를 시행합니까?

〈원 장〉

- 다른기관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퇴직 연금이라는 별도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각 연구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연구원도 자체 규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재무회계 과장님이 보안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김정희 과장〉

- 국민연금 쪽에 있는 퇴직금을 충당한 것입니다.
- 원장님께서 별도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 별도의 연금제도 개혁안인 공공기관 연금에 대해 이야기 중이지만 결론은 안 났습니다.
-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찬 이사〉

- 퇴직연금제도를 충남연구원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김정희 과장>

-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세은 이사>

- 54억 정도는 은행에 예치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 과장>

- 2019년 12월 31일에 전 직원 퇴직했을 때 퇴직금입니다.
-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세은 이사>

- 50억 정도를 고정된 은행에 예치 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예치했습니까?

<김정희 과장>

- “신한은행, 교보생명, 국민은행!” 세 곳입니다.
- 이명박정부 때 퇴직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이 있어서 근로자가 피해를 봤습니다.
- 퇴직금을 회사에서 갖고 있지 말고, 은행에 “맡겨 놔라”입니다.

<정세은 이사>

- 은행 예치 보호가 오천만원 까지 인데 연금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김정희 과장>

- 그런 우려 때문에 은행을 선정 할 때 세 군데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019년도 결산(안)을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의 장>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 의결안건으로
 - 제 5항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원 장>

- 왜 이 규정을 바꿔야하나면 제가 작년에 취임해서 보니까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는 연구직 같은 경우 논문 발표 및 면접입니다.
- 행정관리직 같은 경우. 1단계 서류를 통과하면 2단계 논술시험 3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 면접 50, 논술 50의 점수가 배분되어있는데 그중 8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 80점을 넘어서 통과되면 문제가 없는데 논술에서 50점 면접에서 29점을 맞아서, 79점이 나와 버리면 합격자를 선정 못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 마지막 단계에서 못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서류, 2단계는 필기시험, 3단계는 인적성 검사, 4단계는 면접시험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점수를 배분하려고 합니다.

<의 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사관리규정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실적평가규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원 장>

- 마찬가지로 연구직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관리 행정직의 측면에서는 세분화 없이 일률적으로 부서장들이 개인의 점수를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명확한 절차와 근거를 만들어 체계화 및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사람의 평가가 아닌 시스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새로운 규정 및 규칙을 넣어서, 우리연구원이 규정, 규칙에 따르려고 합니다.

<의 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실적평가규정개정(안)을 연구원에서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구업무수행규정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 부의안건 참조]

<의 장>

-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가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박종찬 이사〉

- 지정과제를 삭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 장〉

- 과제를 홈페이지 정보자료공유 시스템에 올리고, 오프라인 출판물로 한 다 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 홈페이지 공개 자료시스템에 탑재 시키고 현재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세은 이사〉

- 자료도 규정에 넣어야지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원 장〉

- 근거 없이 하게되면 감사, 계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과 규칙에 들어가야지 우리연구원이 불이익을 면 할 수 있습니다.

〈간 사〉

-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까지 시스템 상에 탑재하고 있는데, 다만 현행 하에서 규정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 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연구업무수행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충남연구원에 대한 전반에 관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정배 이사>

- 지출결산을 보면 경영관련비, 인건비 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약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 하지만 다른 잣대로 보면 인건비나 경영관리비를 아끼는 것은 내부에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 소비자만족 시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만족을 시키려면 매개 역할 하는 분이나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만족 하지 않은 상태에서 CEO분들이 소비자 만족을 외칩니다.

- 그러면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본인한테 가치가 없다 라고 느껴져 퇴사나 업무효율 저하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잘 사용해서 내부 연구원이나 행정직분들의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합니다.

〈원 장〉

-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 초과근무, 연장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점, 명절에도 선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 그래서 경영관리비 예산관련 원장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데 그것 또한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
- 그랜드비전 관련 책자가 4권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 지사님께 먼저 보고 올린 다음 이사님들께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아직 지사님께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 그랜드 비전에서 100년의 미래정책을 설계한 것입니다.
- 어느 연구원도 100년의 미래정책을 설계해서 기초자료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세계 유례가 없는 대(大)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연구원의 연구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외부의 연구진까지 해서 2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이 되면 500명 정도 투입되는 대(大)그랜드 비전 작업입니다.
- 그러니 이사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사님들이 내년에 다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 장>

-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세은 이사>

- 방금 그랜드 비전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랜드 비전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광역경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향후 100년 이면 충남뿐만 아니라, 충청과 대전의 광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의 이야기가 있는 듯 없는 듯해서 광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장>

- 이번 추진전략을 보면 충남, 대전, 충북, 전국, 아시아 순서의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세계를 담는 대(大)연구 작업이 충남에서 나왔고, 큰 그림으로 출발 했습니다.
- 올해까지 밑그림을 그리면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추진전략 과정에서 이사님들에게 참여 요청을 하고, 이사님들이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를 제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정세은 이사>

-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트워크차원에서 광역까지 해야 할 것 습니다.

<원 장>

-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교수님 역할을 해주십시오!

<류주현 이사>

- 시·군 정책에서 전담이 있어서 지역별로 자연스럽게 업무가 연계되어,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한발짝 더 나아가 제안을 드리면 시군을 전담하는 팀에서 해결 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시군의 팀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각 팀들 마다 교류해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연구원에서 배정을 해주고 고정된 시간을 만들어 주면 같이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시군은 언제 하는 서로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 장>

- 류주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전담 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 입니다.

- 올해 이사님들께 어떤일을 하겠다 보고를 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 올해 행사로 6월 15일이 25주년입니다
- 세계지역정책엑스포를 고안해서 25주년 기념으로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충남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지역정책을 대표적으로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 MOU기관의 그 나라 지역적 정책을 내 놓고 다른 시·도연구원들이 지역정책을 갖고 나올 계획입니다
- 충청도 시·군이 이 행사에 전부다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지역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 하는 세계지역정책엑스포를 2박3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이것을 지금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제문화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 계룡 군 문화 축제하고도 연계하는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 코로나 사태 때문에 9월로 미루긴 했지만 외국기관들이 참여하여 국제적 지역정책을 충남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 올해 또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죠?

<간 사>

- 오늘 안건이 아니어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랜드비전 전략과 세계지역엑스포, 공간혁신 또한 있습니다.

<원 장>

- 이사님들이 그때 오셔서 연구원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김황배 이사>

- 많은 연구를 하시고 새로운 미래전략, 방향설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계신데, 특히 시·군협력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 지역산업, 산학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정책네트워크 분야 등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의 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의 장>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의결을 해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12시까지 예정 되어 있었지만, 30분 가까이 지연 되었습니다. 이사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열의로 지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열의가 시·군정과 도정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에서 오늘 의결했던 여러 가지 것들, 이사님들이 제시한 좋은 의견을 잘 받들어서, 나날이 연구원이 일취월장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을 다 잃었습니다. 어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이 화사한 봄날을 도민, 국민 모두가 어서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2020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